

상장사 1분기 실적 암울... 車·조선·항공 등 주목해 볼만

상장사 영업이익 전년 比 절반 ↓
SVB 파산으로 이어진 금융 위기에
미국 금리 격차까지... 증시 악영향
완성차 생산 정상화, 수출액 34% ↑
현대·삼성 등 흑자 전환 예상
실적 안정성 높은 종목 상승세 보여



/유도이미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고강도 긴축 속에서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1분기 영업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에서는 1분기 실적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낼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항공, 조선 업종의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했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곳 이상의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있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9개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하 전망치) 총액은 전년 동기(50조659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26조103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적 전망치가 취합된 199개 상장사 중 약 45%에 이르는 89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매출 상위 10개사 중 6개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88.1%), 포스코홀딩스(-66.6%), SK이

노베이션(-63.5%), LG전자(-44.6%), LG화학(-40.9%), HD현대(-24.2%) 등이 크게 줄었다.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으로 이어진 글로벌 금융 시장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 전반에 걸쳐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금리 격차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진다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기업 실적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규모"라며 "코스피 상장사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반등을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실적 추정치의 개선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이 정상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한 105억 81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월 자동차 수출액은 56억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선 업계도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543억원, 96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도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채현기 흥국증권 연구원은 "은행권 리스크와 통화정책 불확실성 영향권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실적 안정성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반도체 적자 전망에도 외인 '삼성', 기관 '하이닉스' 줍줍

부진 딛고 하반기 개선 기대
삼성전자 영업손실 680억
SK하이닉스는 10조원대 예상



/뉴스시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1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표 종목들을 사모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부진했던 이들 종목들이 상승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9051억원치를 사들였다. 지난주(20~24일) 중에만 7053억원치를 순매수하면서 직전주 순매수액(1997억원)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외인의 수급세에 힘 입어 해당 기간 동

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13일 증가(6만원), 대비 24일까지 5.00% 오른 6만 3000원까지 올랐다.

반도체 대표주 수급세는 기관투자자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기간 기관의 최대 순매수 종목은 SK하이닉스로 2주 동안 3521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기관

은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를 1791억원을 사모는데 이어, DB하이텍 1127억원을 순매수하면서 반도체 대표 종목들을 사모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최근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딛고 하반기부터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 사모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다음달 7일 예정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실적 발표에서는 반도체(DS)부문 영업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 DS의 1분기 영업손실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영업손실이 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영업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각사마다 실적 전망치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전사 영업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다올투자증권은 반도체 부문 대규모 손실로 인해 매출액 61조원, 영업손실 6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방 수요 악화로 서버와 PC, 스마트폰 고객사가 메모리반도체 주문을 줄이고 재고 소진에 주력했다"라며 "메모리업계 재고일수가 6개월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금융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추정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손실이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업황이 최근 바닥을 지

나고 있어 이르면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반등의 직접적인 트리거가 될 DS부문 실적은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도원 KB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수급은 2분기 이후 재고감소와 공급 축소 효과로 개선이 예상된다"며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급축소 효과는 3분기부터 수급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실적둔화가 불가피 하지만 반도체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수급 개선에 초점을 둔 종목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

내달 1.9만세대 집들이... 올해 月기준 최저 수준

5월부터 입주 물량 다시 늘 듯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오는 5월 이후 다시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 증가와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 물량은 총 1만9065세대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최저 수준이다. 올해 월평균 입주 물량(2만5806세대) 대비 26.12%(6741세대)가량 감소했고 전월(1만9610세대)보다 2.78%(545세대) 정도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월

과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1만769세대가 입주한다. 경기와 인천 지역은 각각 8341세대, 2428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지방은 8296세대가 입주한다. 대구가 3057세대로 가장 많다. 동구(1881세대), 서구(856세대), 달성군(320세대) 순이다. 이밖에 대전 1747세대, 경북 1717세대, 전북 1104세대 등 순으로 많다.

오는 5월부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매매·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2차 현대아파트'는 이달 전용면적 77㎡가 5

억4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월 전셋값(6억4000만원) 대비 1억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경우 지난 1월 전용면적 137㎡가 8억6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이달 전셋값인 8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6.98%(6000만원)에 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소위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도 늘고 있다"면서 "이달 내 전매제한 완화의 본격 해제를 앞두고 있어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분양한 단지도 이번엔 바뀐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미래에셋증권, ETN LP 평가 'A등급'

발행사 선택 때 유용한 정보될 듯

미래에셋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월별 시행되는 상장지수증권(ETN) 유동성 공급실적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동성공급자(LP)란 금융상품에 대한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시장 참가자를 말한다. ETN의 LP는 발행 증권사가 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ETN 시장가격이 지표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TN 정규시장 거래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호가를 제출하기 때문에 ETN 시장가격의 비정상적 형성을 막는 역할을 수행한다.

거래소는 가격 괴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들로 하여금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 간격을 의미하는 호가스프레드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에서 유지되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월별 ETN LP 평가로 이어진다. 해당 평가는 LP의 의무 이행도(40%), 적극성(20%), 스프레드 제한(20%) 및 평균 호가 수량(20%)에 대한 평가결과다. 평가등급은 A, B, C, D, F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되는데 'F' 등급 부여 횟수에 따라 LP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

따라서 해당 평가는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한 ETN의 발행사를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된다.

남경민 미래에셋증권 파생부문 팀장은 "ETN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도 발행사가 유동성을 공급하여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